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JDX 유니폼 입고 뚝다

8개국 골퍼들 국가 명예 걸고 격돌
나라별 콘셉트에 맞게 유니폼 제작
글로벌 의류 브랜드 도약 발판으로

멀티스포츠 브랜드 (쑤신한국리아(대표 김한철)의 골프의류업체 JDX멀티스포츠(JDX)가 다음달 4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을 공식 후원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주최하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전 세계 8개국 여자 프로골퍼들이 자웅을 겨루는 국가대항전이다. 미국에서 열렸던 2014년 초대 대회와 2016년 2회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는 자리를 옮겨 여자골프 강국인 한국에서 펼쳐진다.

톱시드를 배정받은 한국에선 박성현(25·KEB하나은행)과 유소연(28·메디



JDX멀티스포츠(JDX)가 다음달 4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을 공식 후원한다. 사진제공 | 쑤신한국리아

류와 함께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리미티드 상품을 한정 판매한다.

또한 JDX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공식 후원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매장 자사에서 대규모 티켓 이벤트를 진행했다.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0명에게 대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객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길웅(쑤신한국리아 마케팅팀 이사)은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기존 대회와 다르게 참가하는 선수들이 JDX가 제작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새롭다"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JDX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국제무대에서는 만큼 유니폼 제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후원을 통해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서 거듭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회 기간 MD숍에서는 특별 제작된 8개국의 유니폼이 전시되고, JDX 각종 의

류와 함께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리미티드 상품을 한정 판매한다.

또한 JDX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공식 후원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매장 자사에서 대규모 티켓 이벤트를 진행했다.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0명에게 대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객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길웅(쑤신한국리아 마케팅팀 이사)은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기존 대회와 다르게 참가하는 선수들이 JDX가 제작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새롭다"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JDX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국제무대에서는 만큼 유니폼 제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후원을 통해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서 거듭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이용대-김기정' 환상의 복식조가 돌아왔다

2년 만의 코리아오픈 가볍게 16강행
이용대 "팬들 응원 덕분에...우승할 것"

한국이 낳은 배드민턴 월드스타 이용대(30·요넥스)가 2년 만에 복귀한 코리아오픈(총상금 60만 달러·남자복식 1위 4만 7400달러)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이용대와 김기정(28·삼성전기)은 26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8 빅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남자복식 32강전에서 세계랭킹 16위 블라디미르 이바노프-이반 소조노프(러시아)조에 2-0(22-20 21-16)으로 승리했다.

이용대는 2016년 이 대회에서 유연성(32·수원시청)과 남자복식 정상에 오른 뒤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소속팀과 해외 이벤트 경기에 출전해왔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상 지난 2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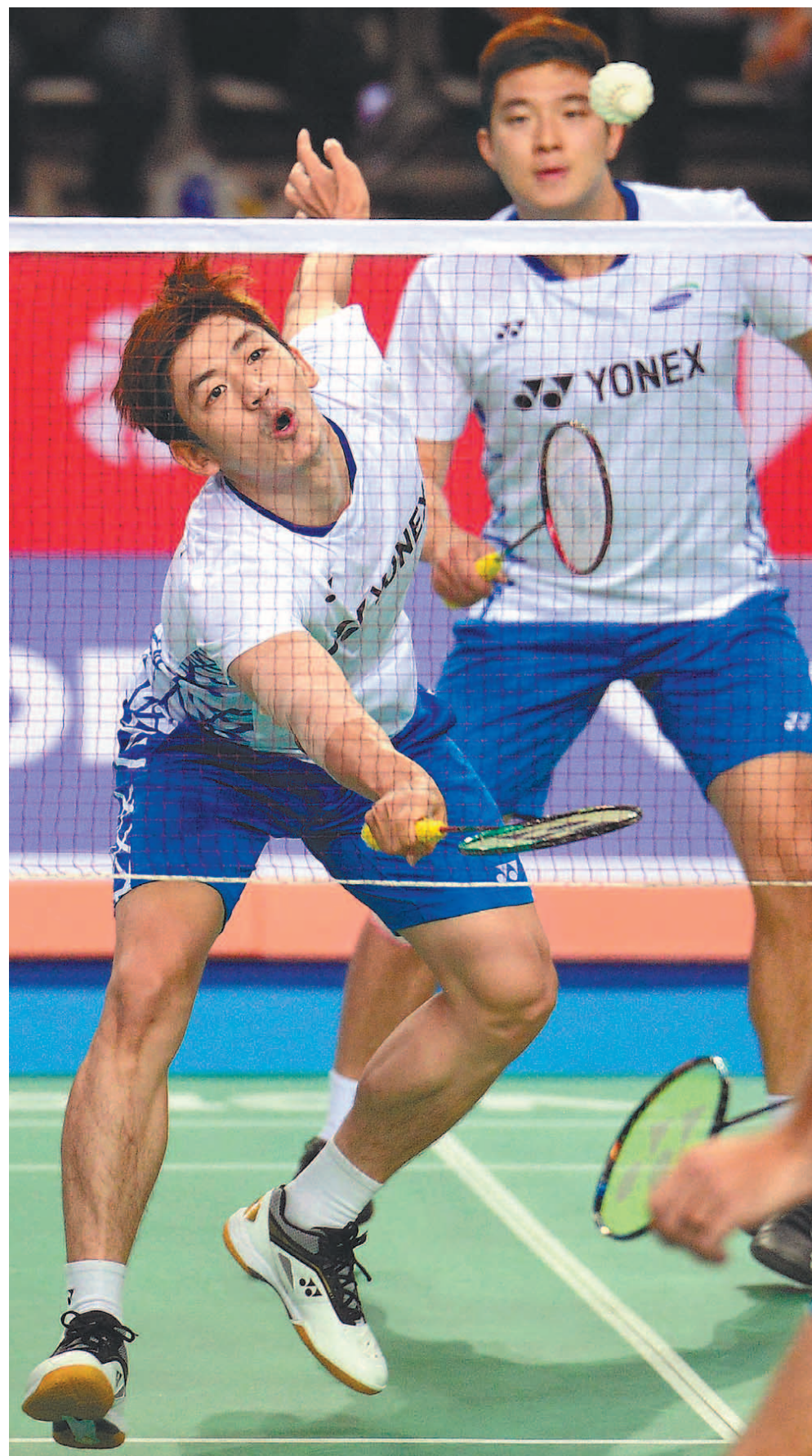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최근 법원이 개인자격 출전을 허용했다. 이용대는 역시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김기정과 손을 잡고 이번 달 초 바르셀로나 스페인 마스터스 2018을 통해 국제대회에 복귀했다.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이용대-김기정은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규모 국제대회인 코리아오픈 우승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관중들의 폭발적인 응원 속에 경기를 치른 이용대는 "많은 분들이 응원해 긴장도 했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땀 흘릴 수 있었다. 우승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용대-김기정의 국제대회 출전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대교체가 진행 중인 국가대표 팀의 젊은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이용대(왼쪽)-김기정 조가 26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8 빅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남자복식 32강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용대는 2년만의 코리아오픈 복귀전 첫 경기를 기분 좋은 승리로 장식했다. 리턴을 시도하고 있는 이용대. 김충원 기자 won@donga.com



타이거 우즈가 24일(한국시간)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애플투데이(미 조지아주) | AP뉴시스

부활한 '골프황제' 우즈 라이더컵까지 접수할까

(내일 개막)

다사다난했던 2017~2018시즌을 갈무리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마지막 화두는 단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3·미국)의 부활이다. 지난 몇 년간 부적절한 스캔들과 부상, 부진 등에 시달렸던 우즈는 24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며 무려 5년 만에 왕좌를 되찾았다.

우즈의 왕좌 복귀는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이슈를 낳았다. 황제의 부활을 지켜보기 위해 대회장에는 수천 명의 갤러리가 운집했고, 최종라운드 시청률(미국 NBC 기준) 역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오른 5.21%로 집계됐다. 우즈 또한 개인 통산 80번째 우승을 이루면서 작고한 샘 스니드(미국)가 보유한 82승 대기록에 한발 더 다가갔다.

이처럼 5년만의 황제 대관식을 화려하게 장식한 우즈의 다음 행선지는 28일 프랑스 르골프 나시오날(파71·7183야드)에서 개막하는 라이더컵이다. PGA 투어를 양분하는 미국과 유럽 프로골퍼들의 경연장을 통해 자신의 부활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다.

6년 만에 라이더컵을 찾는 우즈의 어깨는 무겁다. 미국의 지긋지긋한 원정 징크스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대 전적에서 26승2무13패로 앞서고 있지만 최근 5차례 유럽 원정에서 모두 패했다. 우즈 역시 개인 명예회복이라는 목표를 지닌 상태다. 역대 라이더컵에 총 7차례 나서 매치플레이 13승3무17패에 그쳤던 만큼 이번 대회에선 자신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우즈를 비롯한 전 세계 최고의 스타플레이어 24명이 총출동한다. 미국에선 세계랭킹 1위 저스틴 톰슨과 3위 브룩스 켈카, 4위 저스틴 토마스 등이 나서고 유럽에선 세계랭킹 2위 저스틴 로즈와 6위 로리 매길로 이(이상 잉글랜드), 8위 존 램(스페인) 등이 출전한다.

고봉준 기자

한국 유망주 눈독...일본 V리그의 공습

아마 선수 중 센터 자원 영입 적극적
드래프트 제의 대학 2·3학년 주타깃
고액 연봉에 통역·집 제공 등 러브콜

격정했던 일본 V리그의 공습이 시작됐다. 일본 V리그 구단이 우리 배구 유망주들의 스카우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에이전트를 앞세워 일본행을 권유하고 있다.

이들과 접촉했던 구단관계자는 "센터를 찾고 있다. 연봉은 1억5000만원이고 잘 하면 2억원까지 가능하다. 세금은 구단이 대납해주고 통역과 집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이 정도면 실제로 3~4억원은 받는 셈이다"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줬다.

V리그 측은 한국 배구 유망주들의 수비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날개공격수는 큰 매력 없었지만 센터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신장의 한계로 특히 센터자원이 모자라다. 도레이 애로스가 영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들은 먼저 아시아쿼터를 이용해 중국 선수들을 대상에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허락이 필요해 접촉창구가 막혔다. 그러자 우리에게로 눈을 돌렸다.

V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는 구단과의 협상,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등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유망주를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하는 선수들은 신인드래프트 대상자가 아닌 대학 2~3학년생들이다.

경희대의 홍콩국적 선수 알렉스도 관심을 가지고 접촉한 선수 중 한 명이다. 경희대 김찬호 감독은 "몇몇 구단에서 알렉스의 일본행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 가면 그동안 귀화를 위해 준비해온 4년의 시간이 물거품이 되기에 1년을 더 기다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더 선수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배구의 규정상 일본 V리그가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손길을 뻗어도 막을 방법은 없다. KOVO의 규정도 완벽하지 않다. 문성민도 KOVO의 신인드래프트를 거부했고 결국 뜻을 이룬 사례도 있다. KOVO의 의무 신인드래프트 참가규정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밀려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유망주를 노리는 일본 V리그의 공습에 맞춰 KOVO가 움직여야 할 때다. 일본배구협회 혹은 일본 V리그 사무국과 KOVO가 상호간의 계약을 존중하고 두 나라 아마추어 선수의 권리도 보호해주는 협정이 필요하다.

김중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콘도/골프 회원권 매도/매수/교환 급매각!

SHINHAN MEMBERSHIP 신한 회원권 주식회사		SHINHAN MEMBERSHIP 신한 회원권 주식회사	
콘도명	시세(만원)	골프장명	시세(만원)
대명 리조트(회원제/무)	2,050	태광(개)	7,000
대명 스위트(회원제/기명)	3,600	크리스탈밸리 위기명(분양)	20,000
아난티 레지던스(회원제/기명)	4,600	제일	14,000
한화 38(등기/기명)	1,380	비에비스타(주중/무)	23,000
엘리힐리 17(회원제/기)	1,300	오크밸리	27,700

▶ 지정 계좌: 우리1005303439878 ▶ 예금주: 신한회원권주식회사
*이전 회원권 매도/매수/교환 시 수수료 2% 적용. (환급금 포함) *본인 명의 계좌로
*본인 명의 사외계좌 매수 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2) 6239 8800**